

강경애 소설, 제도 뛰어넘기 방식

- 「어머니와 딸」을 중심으로 -

임 선 애*

<목 차>

- | | |
|-------------------------|--------------|
| 1. 시작하며 | 3.2. 제도 비껴서기 |
| 2. 강경애와 여성문제 | 3.3. 제도 뛰어넘기 |
| 3. 「어머니와 딸」, 제도 뛰어넘기 방식 | 4. 끝내며 |
| 3.1. 제도 속에 갇히기 | |

【요 약】

「어머니와 딸」은 한 여성의 태어남에서부터 자아의 각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성성장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 20세기 초, 일본은 근대화를 부르짖으며 서구문화들을 가져왔지만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주의는 극복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강경애는 근대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세 여성의 삶을 통해서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며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을 보여준다. 자아의식이 없었던 예쁜이의 삶을 통해서 남성중심주의의 제도 속에 갇혀사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볼 수 있다. 주체의식과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산호주는 남성중심주의에서 비껴나서 미혼모로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그녀의 성실한 삶은 기생들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게 한다. 구식여성이었던 옥이는 시어머니의 딸로서, 선생님의 제자로서, 남편의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아내로서 생활하다가 노동운동가의 모습에서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고, 삶의 방향을 설정한 옥이는 이혼요구의 주체자로 변모한다.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강경애는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남성중심주의적인 가정을 벗어나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할 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경애는 여성의 억압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장치로 노동을 통한 사회운동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녀의 좌편향적인 사고는 작품의 범위를 1930년대 문학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1930년대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문학이라는 의의만 가지게 만들고 말았다. 『어머니와 딸』은 20세기 초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여성들이 당대사회의 결혼제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갔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주체를 표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를 뛰어넘는 옥이에게서 여성해방의 전망을 찾을 수 있는 작품이다.

1. 시작하며

강경애(1907~1943)¹⁾는 1907년 송화에서 출생하여 장연에서 어린시

- 1) 강경애의 생애 중에서 자신의 출생과 사망, 부친의 사망, 어머니의 개가와 장연으로의 이주, 여학교 입학, 결혼, 간도로의 이주 등에 관한 연도의 편차는 연구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여성이며, 간도에서 생활했고, 당대의 문단에서 활동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문우도 사귀지 않았으며, 해방전 북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유들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강경애가 살았던 시대에는 실제의 출생년도와 호적상의 출생년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서 출생후 몇 년 동안 자라는 것을 보아 가면서 호적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 아이의 출생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간주되어서 출생년도의 정확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숫자개념이 희박했고, 1년 전의 삶이나 1년 후의 삶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

절을 보냈고, 1921년 평양숭의여학교에 입학했지만 3학년 때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당한다. 간도에서 결혼생활을 했으며 1943년 장연으로 돌아와 짧은 생애를 마칠 때까지 23편의 작품을 남겼다.

문학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1920, 30년대만큼 그 존재론적 당위성이 문제시된 적도 드물다. 당시 활발했던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기 위해 문학을 도구로 삼았다. 192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민족문학론과 계급문학론의 논쟁으로 문학적인 글쓰기의 관심은 민족과 계급이라는 문제로 양분화되었다. 대립적인 논쟁의 가운데 서 있는 문학적 글쓰기의 주체들은 선택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단적인 분위기를 읽으면서 글쓰기를 시작한 강경애도 창작방법론의 선택적 입장에 대한 고민은 있었을 것이다. KAPF 구성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이 궁핍하고 불우했다는 점, 근우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 남편이 사회주의자였다는 점 등의 정황과 그가 남긴 글과 작품들에서 ‘무산대중을 위한 계급투쟁’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경애는 현실의 문제, 창작방법론, 리얼리즘 작가로서의 자세 등 글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 강경애의 글과 작품들을 살펴보면 농민, 노동자, 간도 이주민, 항일민족운동가, 여성들의 문제에 관심²⁾이 있었으며, 그 전망을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인 강경애에게 있어서 예술의 대중화³⁾는 창작방법론의 핵심과제였

다고 생각했던 당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를 감안한다면 1,2년의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2) 임선애, 강경애 소설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2.

3) 예술대중화란 노동자, 농민대중의 생활감정에 기초한 올바른 예술을 확립하고, 예술을 통하여 대중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현재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더 나아가 대중들 자신이 예술을 창작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다.(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

고, 그녀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소재와 등장인물의 선택은 대중성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리얼리즘 작가로서의 현실 그리기는 예술의 대중화의 선상에서 논의되는 강경애의 화두였다.

저들의 피와 땀을 사정없이 긁어모아 먹고 입고 살아온 내가 아니냐! 우리들이 배운다는 것은, 아니 배웠다든 것은 저들의 노동력을 좀더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더냐!

돌 한 개 만져보지 못한 나, 흙 한 줌 쥐어보지 못한 나는 돌의 굳음을 모르고 흙의 보드라움을 모르는 나는, 아니 이 차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평안히 이렇게 호사스럽게 차안에 앉아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차라리 이 붓대를 꺾어버리자. 내가 쓴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이때껏 배운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 붓 끝에 씌어지는 것은 모두가 이런 종류에서 좁쌀 한 알만큼, 아니 실오라기만큼 그만큼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저 판에 박은 듯하였다.(전집, 722쪽)

강경애는 우리 나라⁴⁾뿐만 아니라 연변⁵⁾과 북한⁶⁾의 문학사에서도 1930년대의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방법⁷⁾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해석적 접근으로 강경애의 문학이 조명되고 있지만, 인간문제를 제외한 개개 작품에 대

비평사, 1989, 44쪽) 강경애는 「염상섭 씨의 논설 ‘명일의 길’을 읽고」(조선일보, 1929.10.3.~7.)에서 예술의 대중화를 주장한다.

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임종국, 한국문학의 민중사, 1986.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연구, 1987, 민음사.

5) 박충록, 한국민중문학사, 열사람, 1988.(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연변교육출판사가 1987년에 발행한 조선문학간사를 우리 나라에서 출판한 책)

6) 김하명·류만 외 2인, 조선문학통사3, 이회문화사, 1992.(1981년에 북한에서 발간된 문학사인데 해금이후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책)

7) 리얼리즘, 페미니즘, 근대성의 이론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 논의하려는『어머니와 딸』은 강경애의 첫 장편소설이라는 것과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에 대한 경제적·성적 억압과 조혼제도라는 봉건적 인습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노동자계급의 전망 속에서 찾고자 한 최초의 장편소설⁸⁾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문학의 이론적 연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기술에 추종해야 한다. 작품을 정확하게 읽는 사람만이 작품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⁹⁾는 입장에서『어머니와 딸』¹⁰⁾을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작품이 지닌 의미를 다양화시키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근대공간을 살아가는 세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의 차이를 밝히고, 봉건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공간에서 결혼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를 논의함으로써 강경애 문학의 당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2. 강경애와 여성문제

우리의 근대는 식민지적 근대로 그 구체적 현실에서 복합성과 역동성이 드러난다. 식민지적 근대는 식민지체제 속에 존재했던 서구적 근대와 대비되는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는 물론 이전의 전통적 지배와는 달리 변형된 근대성의 원리에 의존했다는 점에서의 근대적 현상¹¹⁾이다. 20세기 초는 봉건과 근대, 신질서와 구질서, 전통과 서구의 가치관들이 충돌하면서 대립 혹은 혼란의 양상을 보이는 공간이었다. 당대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기

8) 이상경, 강경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94쪽.

9) 볼프강 카이저, 언어 예술 작품론, 김윤식 역, 대방출판사, 1982, 16쪽.

10) 텍스트는 이상경이 엮은 강경애 전집(소명출판, 1999)으로 하며 이하는 쪽수만 표기한다.

11)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8, 21쪽.

이기도 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의 여성들은 문명개화를 위해 변화해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주요 등장인물¹²⁾이었으며 여성들의 근대화는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우리 나라의 근대여성운동은 학교교육을 받은 여성 지식인들과 여성단체를 통해서 전개되었다. 3·1운동 이후 여자청년회, 부인회 등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결성된 여성단체는 여성을 인간으로서 자각하게 하는 데 기여했으나, 여성들의 현실인식부족과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자체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계몽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 후 여성운동은 노동자·농민 운동의 성장, 사회주의 유입, 일제의 민족분열책동에 대한 대응으로 활성화¹³⁾되었다. 1927년 발족된 근우회는 ‘조선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함’, ‘조선여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강령으로 채택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강령의 내용은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성 당시의 문제의식이나 방향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운동목표는 반제·반봉건 운동이었다. 이 점은 ‘교육에서의 성적차별철폐,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정치적 차별철폐를 비롯하여 일제의 봉건적 인습과 미신타파, 조혼폐지 및 결혼·이혼의 자유, 인신매매 및 공창폐지, 농민부인의 경제적 이익옹호, 부인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휴가와 임금지불, 부인과 소년 노동자의 위험 노동 및 야업폐지’ 등 행동강령과 근우회에서 전개한 활동¹⁴⁾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사회주의계열의 근우회 회원이었던 강경애도 동시대가 지닌 여성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조선 여성들의 밭을 길」(조선일보, 1930, 11, 28~29)에서 사회개혁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12) 전은정,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여성과 사회, 창작과비평사, 2000, 29쪽.

13) 최경숙, 한국근대사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279쪽.

14) 최경숙, 앞의 책, 281쪽.

무론 가정 내에서 남성을 도와 일가의 평화와 단락을 도모하며 자녀를 길러 우리 사회에 굳센 일꾼을 보내는 것이 여성의 공통적·천부적 책임이지만 우리 사회에 결함이 많으니 만큼 우리 조선 여성의 특수한 사명도 있을 것이다.

일가가 사회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자기 몸은 무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가 사회와 이해 휴척을 같이하는 이상 우리 여성들도 이 사회에 대하여 관심치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전집, 710쪽)

위의 예를 보면 강경애는 여성을 가정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여성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들이 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독서, 한글보급, 물산장려의 세 가지로 들면서 여성들이 가정을 개혁하고 나아가 사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송년사」(신가정, 1933,12)에서도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인한 여성상품화를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완전한 개편을 보지 못하고는 완전한 여성의 해방을 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해방은 고사하고 더욱 더욱 여성은 상품화하며 따라서 인간적 지위에서 점점 더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극동의 풍운이 험악해 오는 이 해를 보내며 더욱 이런 감상이 생깁니다. 꾸준히 서로 노력합시다.(전집, 746쪽)

위의 예에서 보듯이 강경애는 여성억압의 근원을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봉건제의 유제인 남성중심주의는 21세기인 지금에도 여성억압의 기제로 여전히 남아서 여성비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강경애는 여성의 상품화 문제를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동정」, 「마약」, 「지하촌」 등의 작품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3. 「어머니와 딸」, 제도 뛰어넘기 방식

「어머니와 딸」은 1.번민, 2.추억, 3.남편, 4.세 친구, 5.짝사랑, 6.옥이라는 여섯 개의 번호와 제목으로 서술되고 있다. 1의 부분은 현재, 2의 부분은 과거, 3,4,5의 부분은 1의 부분과 연결되는 현재시제로 되돌아오는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2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여성의 대조되는 삶은 주인공 여성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모델이 되고 결국에는 제도를 뛰어넘는 인물이 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여성성장소설의 한 유형이다. 「어머니와 딸」은 남성중심주의 사회제도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비극적인 삶을 제시하며 모순된 제도의 극복은 노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운동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즉 여성들이 남성중심적인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대응방식에 따라서 여성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장에서는 근대성을 지닌 공간에서 여성주인공이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읽어내고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정해 보려고 한다.

3.1. 제도 속에 갇히기

주인공 옥이의 어머니인 예쁜이는 소작농의 딸로 가난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다. 예쁜이를 짝사랑하는 둘째를 남겨두고 서울에 있는 농장주인인 이춘식의 첩실로 팔려간다. 예쁜이가 딸을 낳자 이춘식의 가족들에게 갖은 구박을 당하고, 자신이 낳은 딸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한다. 딸을 찾기 위해 저항하는 예쁜이는 힘의 부족으로 위기를 맞지만 둘째가 나타나서 모녀를 구해준다. 예쁜이가 딸과 함께 집으로 쫓겨오자 아버지는 농사일마저 잃게 된다. 아버지는 이춘식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서울로 떠난다. 아버지를 찾아 나선 어

머니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린 아들과 함께 한강에 빠져 죽는다. 부모와 동생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예쁜이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자신이 낳은 딸은 돌보지 않고 남자와 술로 세월을 보낸다. 결국에는 딸을 버리고 남자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버린다.

예쁜이가 타락하는 원인은 가족구조의 해체에서 찾을 수 있고, 가족구조해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적인 빈곤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의 수탈은 농촌사회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고 절대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은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벗겨먹기까지 하며¹⁵⁾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해 나갔다. 이 작품 속에도 굶어서 죽는 둘째어머니를 볼 수 있는데 강경애는 절대빈곤이 죽음을 불러오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절대빈곤은 생존의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농촌의 여성들이 쾌락의 대상화 혹은 교환 가치의 대상화되는 것이다.

소작농가의 경제상태가 더욱 열악하여 가족의 물질적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가족의 소비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농촌의 여아는 가족 집단 밖으로 여공·고녀(가내 하녀) 등의 형태로 임노동자화를 경험하거나 혹은 당시 도시에서 발흥하고 있던 매춘 산업에 자신의 성을 상품화시키기를 강요당했다. 이보다 나은 것이 당시의 평균 혼인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혼인하여 자신의 생식 가족을 떠나는 것이었다.¹⁶⁾

위의 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작농의 딸인 예쁜이는 교환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작품 속의 예쁜이 아버지는 식구들의 생계수단인 농사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딸을 농장주인인 이춘식의 첩실로 팔아 넘기

15) 이기백, 한국사 신문, 일조각, 1979, 419쪽.

16) 문소정, 「1920~30년대 소작농가 자녀들의 생활과 교육」,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한국사회사연구회, 문학과 지성사, 1990), 117쪽.

고 ‘부자 사위’의 장인이 된다. 혼인은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속적인 남녀의 성적 결합이며,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규범에 바탕을 둔 동거(同居)관계와 경제적 협력이 따르는 사회제도이다.¹⁷⁾ 가부장제의 혼인형태는 일부일처제로 적처가 한 명이라는 뜻에서의 일부일처제였으나, 재산이 있는 집의 적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거느리거나 다른 여자와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이 데리고 오는 여자와 한집에서 기거하며 질투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노동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법이 인정하는 혼인제도 밖에 존재하는 첩실제도는 제도권 밖에 있는 또 다른 혼인제도이며 당대의 여인들은 이를 운명으로 여기며 받아들였다. 예쁜이의 혼인이 정상적인 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의 인물들은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누구도 그 사실을 동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황윤리 속에서 살아가는 당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혼인 결정으로 예쁜이가 당황하자 어머니는 ‘야! 울지말라구, 누구나다 한번씩은 겪는 일인데 무얼. 내가 열네살에 너의 아버지한테 왔겠니.’(33쪽)라고 예쁜이의 혼인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예쁜이 어머니는 정상적인 혼인과 비정상적인 혼인의 차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무지한 인물이며 서울로 가면 좋은 구경(34쪽)도 하니까 좋다는 식으로 딸의 혼인을 부추기기도 한다. 동네 사람들도 예쁜이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 이춘식의 호강첩으로 팔려갔다’(35쪽)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 강경애는 당대인들의 무지와 절대적 빈곤이 여성의 비극을 더욱더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이후의 작품인 「인간문제」, 「동정」, 「마약」, 「지하촌」 등에서도 절대빈곤으로 인해서 쾌락적 대상이 되고 교환가치로 이용되는 여성들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쁜이의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더욱이 남성

17) 두산 Cyber 백과사전-혼인.

우위사회에서 딸의 출산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딸의 출산 이후 예쁜이는 가사노동의 보조자로 전락하고 남편과 본처의 합의 하에 쫓겨나게 된다. 자신이 낳은 딸을 찾겠다는 모성 외에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모든 것을 타인의 결정에 맡기는 예쁜이의 수동적인 삶의 방식은 구시대 여성들의 전형이다. 예쁜이의 어머니와 예쁜이는 삶의 주체로서의 의식이 전혀 없는 인물¹⁸⁾이며 남성의 부속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고 남편과 아버지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남편을 잃자 예쁜이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과 함께 자살해버리는데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주체로서의 삶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당대여인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자 예쁜이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는 예쁜이 어머니와 예쁜이의 삶의 중심이 남성에게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강경애는 두 여성의 삶을 통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함으로써 제도 속에 간혀버린 당대 여인들의 비극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예쁜이가 딸을 찾으려고 저항하다가 위기에 몰리자 홀연히 둘째가 나타나서 예쁜이 모녀를 구출한다는 것은 고소설의 주인공들이 위기를 맞을 때 신적인 존재가 출몰하여 주인공을 구출하는 고소설적 모티브이며, 부모와 동생의 죽음을 요약식으로 전하는 부분은 신소설의 결말 처리 방법이다. 이런 상호텍스트성의 발견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고소설 및 잡지며 신문 등을 읽기에 열중했다는 강경애의 고백¹⁹⁾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우리 근대문학의 맥락을 전통장르와의 연관 속에서 논의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18) 이태숙은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94쪽에서 예쁜이가 타락하는 원인이 예쁜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산호주의 삶과 비교해보면 예쁜이에게 원인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고향의 창공」, 「자서소전」, 강경애 전집, 758~761쪽.

3.2. 제도 비껴서기

산호주는 사생아로 태어나 평양고아원과 기생학교를 거쳐 기생이 된다. 그는 고학생 강수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강수의 일본유학 뒷바라지까지 한다. 중등학교 교사가 된 강수는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과 산호주 몰래 결혼을 한다. 실연의 상처와 함께 강수의 아이를 가진 산호주는 시골로 이사한다. 아들을 낳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다가 요절한다.

산호주는 기생학교 출신의 기생으로 위의 두 여성들처럼 남성중심적인 삶을 사는 인물이 아니다. 기생학교는 일제시대에 인신매매의 금지와 여성의 사회진출(사실은 젊은 딸들의 입을 덜기 위함이나 몸을 팔아 넘기는 일에 불과하지만)장려²⁰⁾라는 미명 하에 정책적으로 운영된²¹⁾ 기생양성기관이었다. 기생학교 학생들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남성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여성들로서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모던 걸로 취급되어, 정규 학교교육을 받은 신여성들과 함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동시에 그녀들은 축첩문제 등 가정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간주되어²²⁾ 사회에서 일탈자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 이들은 『長恨』과 『女聲』이라는 기생, 여급 잡지 등을 통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비난받는 것의 부당성과 자신들이 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당화하였으며, 여급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촉구²³⁾하기도 했다. 산호주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기도 하

20) 가와무라 미나토, 말하는 꽃 기생, 유재순 옮김, 소담 출판사, 2002, 190~211쪽 참조.

21) 가와무라 미나토, 위의 책, 196쪽 참조.

22) 백문임, 「‘기생’ 여주인공들의 비극과 귀환」, 타자비평 제1호, 예림기획, 2001.

23) 전은정,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여성과 사회 제11호, 창작과비평사, 2000, 41쪽.

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생각도 하는 의식있는 삶을 사는 기생이다.

이러한 독특한 성향을 가진 그는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하였다. 그때의 자기 본성에 발로되는 것이었다. 두 눈을 가만히 뜨고 끝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그는 평상시와는 판판인 것을 엿볼 수 있다. 어느 때나 위급할 때를 당하게 되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모든 것을 후회없이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든지 무심코 듣고 보는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자기에게 대조해 보고 끝없이 자기의 처지를 불만히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기의 장래라는 것은 눈물나리 만큼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다.(전집 57쪽)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산호주는 사색을 즐기고 이성적인 판단력과 비판정신을 갖춘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사랑했던 남성의 배신으로 행복을 잃고 절망했지만 세상에서 인식되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로 재빨리 돌아올 줄 아는 여성이다. 같은 공간에서의 삶을 살았던 예쁜이가 남성들을 잃고 자신의 삶을 상실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차이의 기준은 삶에 대한 주체로서의 자각여부라고 할 수 있다. 삶에 대한 주체의식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탈남성중심주의가 바탕이 되고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갖추었던 산호주는 미혼모로서 아들을 낳고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산호주의 모습에서 전대의 현처야담 속에 등장하는 현처의 모습을, 일제시대 여성교육의 이념 하에 양성되었던 현모(양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산호주의 정돈되고 규모있는 살림섬씨와 절도있는 생활태도는 동네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강경애는 당대 사회에서 천하게 취급되고 불건전한 이미지를 가졌던 기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산호주를 그림으로써 기생들의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세기 초 자유연애사상의 유입으로 여러 형태의 가정이 생겨났는데 그 중의 하나가 미혼모 가정이다. 강경애는 산호주를 통해서 남성중심의 가정이 아닌 여성중심의 가정도 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강경애는 이 작품에서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은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견해²⁴⁾와 일치한다. 타자로서의 삶을 산 예쁜이와 주체로서의 삶을 산 산호주는 둘다 남성중심주의적인 제도 아래에서 불행을 경험한 여성들이다. 예쁜이는 주체로서의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 속에 갇혀서 비극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고, 산호주는 주체로서의 자각과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비껴서서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었다. 강경애는 산호주를 통해서 여성해방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3.3. 제도 뛰어넘기

주인공 옥이는 어머니가 버리고 떠남으로 고아가 되고, 산호주의 집에서 살게 된다. 그녀는 산호주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산호주의 아들 봉준이를 동생처럼 돌보면서 자라난다. 산호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옥이와 봉준이는 김영철 선생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김선생은 옥이가 20세, 봉준이 17세가 되자 결혼을 시키고 봉준을 평양에 있는 학교로 보낸다. 김선생은 봉준을 보낸 후 옥이를 읍으로 이사를 시키고 학교에 입학시킨다. 옥이는 가사일과 학업에 열중하며 봉준을 기다리지만, 봉준으로부터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고 고민에 빠진다. 일

24) 허정숙, 동아일보, 1924.11.3.-자유연애론자들이 스스로 독립하려 하고자기 생활을 자기 손으로 영위하려면 자유연애를 주장하기에 앞서, 경제적 독립이 근본이다.

정종명, 조선일보, 1930.1.1.-전통적인 삼종지도의 관념에서 벗어난 독립된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에서 돌아온 봉준은 신여성인 숙희를 짝사랑하면서도 구식아내인 옥이를 서울에 있는 여학교에 입학시킨다. 자신이 숙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옥이를 친구인 재일에게 떠넘기려고 하지만 옥이는 가정을 지키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봉준이가 숙희로 인해 상사병을 앓자 그 뒷바라지로 고생하던 중 거리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영실 오빠를 보고 옥이는 깨달음을 얻는다. 집으로 돌아간 옥이는 남편에게 이혼에 동의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

옥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봉준 어머니의 삶을 비교할 줄 아는 이성적인 아이였다.

아기는 눈만 뜨면 봉준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언제나 고요히 웃는 눈, 항상 쓰다듬어 주는 그의 흰 손, 그리고 가늘고도 부드러운 그의 음성이었다. 더구나 봉준의 고운 옷감을 꿰어다 손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것이다.

아기는 가만히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 보았다. 구석구석이 때묻은 옷을 내버려두는 것, 그리고 술이나 마시고 마시고, 해종일 마시고는 사내놈들의 무릎과 무릎 사이로 옮겨 다니는 꼴이었다. 그는 울고 싶었다. 아니 남몰래 우는 적이 많았다. 그는 쓰라린 현실로부터 그의 이지(理智)는 엉뚱하게 발달되었던 것이다.(전집 63쪽)

어린 옥이는 인자하고 부지런함으로 가정을 이끌어간 봉준어머니를 긍정적인 인물로, 불성실하고 방탕한 친어머니를 부정적인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옥이는 봉준 어머니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설정한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옥이는 시어머니의 근면함과 성실성을 본받아 남편이 유학생활동을 하는 동안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신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지킨다. 옥이는 이런 자신의 삶을 시어머니에 대한 딸(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 봉준은 신여성에 대한 사랑과 구식부인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옥이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

는 신여성들의 고통 못지 않게 지식인 남성들의 고통 역시 컸다. 신교육을 받은 그들은, 연애 없는 결혼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민족의 발달, 인류의 진화에 큰 장애를 주는 것이라 주장하는 구리야가 하쿠손(부川白村)의 ‘근대연애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²⁵⁾ 그러나 일찍이 조혼을 했던 남성들의 경우, 신여성과의 자유연애와 자신들의 구식 부인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번민할 수 밖에 없었다.

남편의 이혼제외에 욕이는 고민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혼으로 인한 구식여성의 고통도 컸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아무리 살림을 잘하더라도 신학문을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독방신세를 면하기 힘들었다.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구식여성들은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야학 등에서 글을 깨치기도 했다.²⁶⁾ 남편으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은 욕이는 ‘남자를 믿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시어머니의 뜻이 남성의존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자각한다. 또한 남편으로부터의 이혼요구는 남성중심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친정어머니가 겪은 불행이 남성으로부터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부끄럽게 여겨왔던 친정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강경애는 남편에게 쫓겨난 예쁜이, 애인에게 배신당한 산호주, 남편의 이혼요구에 시달리는 욕이라는 세 여성들을 통해서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주체는 남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숙회를 짝사랑하는 봉준의 상사병이 신경쇠약으로까지 깊어지게 되자 욕이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숙회를 찾아가서 아픈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에서 남편의 요구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욕이의 헌신적인 사랑을 볼 수 있다. 이런 욕이의 모습에서 남편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구여성상의 전형을

25) 서형실, 「일제시기 신여성의 자유연애론」,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사회사로 보는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역사 비평사, 1988, 67쪽.

26) 서형실, 역사문제연구소, 앞의 책, 69쪽.

발견할 수 있다. 봉준과 숙희, 옥이와 재일 등의 남녀문제에 관한 이야기 길게 서술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통속소설²⁷⁾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작품을 치밀하게 읽지 않고 부분만을 대상으로 전체를 논하는 잘못된 태도이다.

봉준의 집으로 돌아가던 옥이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생활을 하는 영실 오빠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노동운동가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깨닫게 되고²⁸⁾ 남성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게 된다.

‘나는 어떠한 길을 걸었나? 아니 나도 사람인가? 밥을 먹고 옷을 입을 줄 아니 사람이랄까, 울고 옷을 줄 아니 사람이랄까? 응! 아니다! 울었다면 나를 위하여 울었더냐? 웃었다면 진정한 나의 웃음이었더냐? 모두가 봉준을 위하여였음이었다. 두루뭉수리 삶이었다! 이러한 삶을 계속시키려고 안타깝게 울었던 것이었다. 불쌍한 인간!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대문으로 들어섰다.(전집 122쪽)

27) 이 작(作)은 여러 가지로 보아 결코 낮선 솜씨가 아니다. 도리어 부분부분의 섬세한 묘사같은 것은 충분히 대가의 그것에도 손색이 없을만큼 치밀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앞으로 대성할 소질이 넉넉하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섬세한 것은 내용이 시속의 값싼 미국 활동사진의 그것에 근사한 것이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데 무리와 조루가 많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한 무명작가로, 더구나 현대 조선에 있어서 여자로는 누구라도 손대어 보지 못한 큰 노력을 시험하였다는 것이다. 주견 없는 평과 가사를 내린 것을 작가에게 사하며 앞으로 더욱 용진함이 잇기를 축수하여 마지 아니한다.(전집, 13쪽)-혜성의 편집인이었던 채만식의 평.

28) 천연희(『강경애의 『어머니의 딸』과 에디스 워튼의 『연락(宴樂)의 집』에 나타난 어머니의 유산-“삭임”과 허영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26집, 신영어영문학회, 2003, 149쪽)는 옥이의 자각은 “삭임”이 가져온 재생의 힘이라고 하면서 삭임은 ‘한’의 긍정적인 속성이라고 한다.

옥이의 결혼생활의 중심은 남편에게 있었다. 삶의 중심을 남편에서 영실오빠로 옮김으로써 남편의 이혼요구에 괴로워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새로운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의 삶과 영실 오빠의 삶이 대비된다.

‘불쌍한 인간! 차라리 울 바에는 너를 위하여 울어라. 좀더 나아가 여러 사람을 위하여 울어라! 한낱 계집애를 생각하여 운다는 것은 너무나 값없는 울음이 아니냐! 이렇게 부르짖을 때 아까 본 영실의 오빠가 머리에 푹푹히 나타나는 것이었다. 하여 자기 가슴속에 깊이깊이 들어 앉았던 남편인 봉준이는 차츰차츰 희미하게 사라지기 시작하였다.(전집 123쪽)

옥이는 자유연애사상에 물들어서 학업까지 포기하고 신여성을 짝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은 무가치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계급투쟁을 이끌어가는 영실오빠의 모습은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역할모델을 시어머니에서 노동자로 변환한다. 옥이는 삶의 중심을 시어머니→김영철 선생→남편→노동자로 옮기면서 자신이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옥이의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성장소설로 규정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에서 자신을 발견한 옥이는 이혼요구의 주체자로 변모한다. 봉준을 향한 옥이의 이혼선언에서 봉건적인 결혼제도를 뛰어넘는 여성해방을 볼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민족해방의 성취를 목표로 삼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보다 계급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본질적임을 주장하며 근로여성운동을 펼치고자²⁹⁾ 했는데, 이 작품에서 보이는 제도 뛰어넘기 방식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주장과 일치점이 있다.

29)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9, 98~99쪽.

4. 끝내며

문학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1920,30년대만큼 그 존재론적 당위성이 문제시된 적도 드물었다. 강경애는 KAPF 구성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이 궁핍하고 불우했다는 점, 근우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 남편이 사회주의자였다는 점 등의 정황과 그가 남긴 글과 작품들에서 무산대중을 위한 계급투쟁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현실의 문제, 창작방법론, 리얼리즘 작가로서의 자세 등 글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녀의 글과 작품들을 살펴보면 농민, 노동자, 간도 이주민, 항일민족운동가, 지식인, 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 전망을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는 봉건과 근대, 신질서와 구질서, 전통과 서구의 가치관들이 충돌하면서 대립 혹은 혼란의 양상을 보이는 공간이었다. 당대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사회주의계열의 근우회 회원이었던 강경애도 「조선 여성들의 밝은 길」, 「송년사」 등의 글에서 동시대가 지닌 여성문제를 지적하고 여성들의 각성과 단결을 요구한다. 그녀는 여성문제들을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동정」, 「마약」, 「지하촌」 등의 작품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어머니와 딸」은 한 여성의 태어남에서부터 자아의 각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성성장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 20세기 초, 일본은 근대화를 부르짖으며 서구문화들을 가져왔지만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주의는 극복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강경애는 근대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세 여성의 삶을 통해서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며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을 보여준다. 자아의식이 없었던 예쁜이의 삶을 통해서 남성중심주의의 제도 속에 간혀사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볼 수 있다. 주체의식과 경제적인 능력을 가

진 산호주는 남성중심주의에서 비껴나서 미혼모로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그녀의 성실한 삶은 기생들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게 한다. 구식여성이었던 옥이는 시어머니의 딸로서, 선생님의 제자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생활하다가 노동운동가의 모습에서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고, 삶의 방향을 설정한 옥이는 이혼요구의 주체자로 변모한다.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강경애는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남성중심주의적인 가정을 벗어나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할 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경애는 여성의 억압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장치로 노동을 통한 사회운동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녀의 좌편향적인 사고는 작품의 범위를 1930년대 문학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1930년대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문학이라는 의미만 가지게 만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어머니와 딸』을 통해서 소설장르의 출현은 역사없는 사회는 없으며 사회없는 역사는 없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의미하며, 소설은 인간을 명백하게 역사적 사회적인 방법으로 의미하는 첫 예술³⁰⁾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은 20세기 초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여성들이 당대사회의 결혼제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갔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를 뛰어넘는 옥이에게서 여성해방의 전망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작품 또는 다른 작가와의 비교논의는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강경애(Gang gyeong-ae), 어머니와 딸(Mother and Daughter), 남성중심주의(male superiority), 결혼제도(marriage system), 조혼(early marriage), 이혼(divorce), 노동운동(labor movement), 여성해방(woman liberation)

30) 미셸 제라파, 소설과 사회, 이동렬 역, 문학과 지성사, 1981, 27쪽.

참고문헌

-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 출판사, 1988.
-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출판사, 1973.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정화, 강경애 연구, 범학사, 2000.
-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8.
- 박용옥 엮음, 여성 ;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 배성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 연구, 돌베개, 1987.
- 역사문제 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 1967.
- 이상경,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 이상경, 강경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 이태숙,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효재, 여성의 사회의식, 평민사, 1980.
- 임선애, 강경애 소설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2.
-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사회사로 보는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역사 비평사, 1988.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9.
- 천연희, 「강경애의 『어머니의 딸』과 에디스 워튼의 『연락(宴樂)의 집』에 나타난 어머니의 유산-“삭임”과 허영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26집, 신영어영문학회, 2003.
- 홍경표, 문학의 비평과 인식, 새미, 2003.
- 홍문표, 문학비평론, 양문각, 1993.
- 가와무라 미나토, 말하는 꽃 기생, 유재순 옮김, 소담출판사, 2002.
- 앤터니 기든슨,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7인, 을유문화사, 1992.
- 안토니 이스트호프,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임상훈 옮김, 현대미학사,

1994.

루시앙 골드만, 소설 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역, 청하, 1982.

C.라이트 밀즈, 사회적 상상력, 강희경 외 1인, 흥성사, 1978.

미하일 바흐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외, 창작과 비평사, 1988.

미셸 제라파, 소설과 사회, 이동렬 역, 문학과 지성사, 1981.

스테판 코올,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여균동 역), 한밭, 1982.

Welleck Rene and Warren, Austin, *Theory of Literature*, London
Peregrin Books, 1966.

W. 카이저, 언어 예술 작품론, 김윤식 역, 대방출판사, 1982.

그 외 두산 Cyber 백과사전, 1930년대 신문, 잡지류.

<Abstract>

Gang Gyeong-ae'Novel, A way of surpassing system

Lim, seon-ae

『Mother and Daughter』is classified into a growth novel by showing the process of a woman's birth to self disillusion. Early 20th century, Japan introduce the western civilization to modernize but the paterfamilias system couldn't be overcome. Kang Kyung-ae shows the way to overcome it by raising a question in argument that what the female suppression system is by showing the three women who live in the modern age. Yeppeni, who has no self awareness, shows an image of traditional woman. Sanhoju, who is subjective and has the financial ability, steps aside from the male superiority and forms a family as a single mother. And her faithful life broke the prejudice to kisaeng. An old-styled woman, Oak, lived as a mother-in-law's daughter, a teacher's student, a husband's wife. But she finds the model of a role as a labor movement. Oak determined a way of her life, and change into the subject of claiming of divorce.

Kang Kyung-ae, who participated in socialism movement, thought women's true liberation is possible when women surpass their paterfamilias system and take part in socialism movement. Kang shows the participation of socialism through labor as a method of surpassing the reality. This left side consideration reduced her literary work's range as 1930's literary. In result, it made her work just as the novel which expresses the ideology of 1930's. Nevertheless, an advent of a genre of novel essentially means no novel that has no

history through 「Mother and Daughter」. And the proposition that novel is the first art of meaning human being as historical, social way is realized by it. 「Mother and Daughter」 shows how women coped with the situation of early 20th century's marriage system. Though it has the limit of expression of subject as an aspect of socialism, we can find the prospect of women liberation from Oak, who surpassed the paterfamilias male superiority. The discussion of comparison with other novel, novelist is left behind as a problem to be solved.

임선애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대학 교양학부 교수

전화: 053-850-3698(연구실) 010-6806-6830

e-mail: salim11@hanmail.net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